불교 지성 '한국불교 세계화'를 논하다

교불련, 7월 5~7일 부산 삼광사 등서 교수불자대회

논문 30편 발표…역대 최대
특별 강연 및 수련법 체험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불교 지성들이 머리를 맞댄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오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삼광사와 송정 약사선원에서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수불자대회에서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담론의 장들이 펼쳐진다. 발표 논문 수도 30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회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한 · 중 · 일 특별회의', '한국불교 국제화 특별회의'로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점검한다. 또한 △한국불교의 포교활동 △한국불교 문화의 세계화 △한국불교와 지역공동체 등 분과회의를 통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그동안 개별적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자유주제와 '아시아 불교' 분과를 운영해 아시아 불교철학을 살피는 시간도 마련했다.

3번에 걸쳐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주제는 △대학불교네트워크 발전 방향 △불교미래포럼 발전 방안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불교교단과 불자 지식인들의 역할 등이다.

교수 불자들의 신행을 증장하기 위해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의 특별법문과 중국 진푸티상사 수련법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등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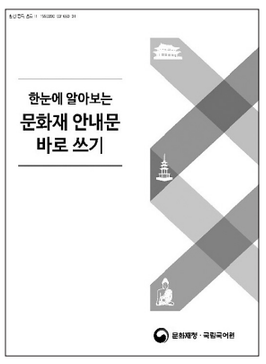
심익섭 교불련 회장은 "이번 대회의 특징은 한 · 중 · 일 불교의 세계 포교 현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중국불교 세계화 사례는 부산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보리수 약사선원이, 일본 사례는 부산에서 포교를 시작한 진여원(신뇨엔) 측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 외에도 지난해 출범한 불교미래포럼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며 "중앙신도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지성 불교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안내문,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문화재청 · 국립국어원, 안내문 작성 지침서 발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문화재 안내문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지침서인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를 발간하였다.

문화재 안내문은 일반 국민에게 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이 이뤄지지만,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문장 표현이 많아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지침서에서는 △문화재 안내문을 작성하고 번역할 때 적용되는 기본 원칙 △안내문에 담겨야 할 내용(문화재 명칭, 지정유형, 연혁 · 유래, 규모, 특징,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 등) △외국어 · 한자 · 숫자 · 연대 · 도량형 표기 방법과 같은 세부 작성기준 등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안내문 적용 사례 30건과 더불어 맞춤법, 띄어쓰기, 표현, 낱말, 쉬운 말 등 주제별로 표로 정리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에는 △ (쉬운 말) '출생한 가옥' → '태어난 집' △(띄어쓰기) '듯 하다 '→' 듯하다 ' △(표현) ' 칼 솜씨를 갖고 있는' → '칼 솜씨를 자랑하는' △(맞춤법) '뼈조각' → '뼛조각' △(낱말) ' 일제 시대' → '일제 강점기' 등 실제 문화재 안내문에서 볼 수 있는 오류들을 살펴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며, 안내문 작성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근대불교 대강백 경운 스님 발자취 '한눈에'

경운원기문손회, '경운원기 대선사 산고집' 발간

근대 한국불교 화엄교학 대강백으로 잘 알려진 경운원기(擎雲元奇, 1858~1936) 스님의 사상과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경운원기대선사문손회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 편저자로 〈화엄종주 경운원기 대선사 산고집〉을 최근 발간했다. 경운 스님은 당대 최고의 화엄학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자료가 적어 관련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산고집 발간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고집에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경운 스님의 행장으로 손상좌인 철운 조정현 스님이 쓴 경운 스님의 이력이 소개 됐고, 위당 정인보가 기록한 '화엄종주경운당대사비(華嚴宗主警雲堂大師碑)' 비문도 수록됐다.

2부는 경운 스님의 유고로서 생전의 시 · 송(頌) · 서간 · 서판 · 그림 등이 원문과 함께 우리말 번역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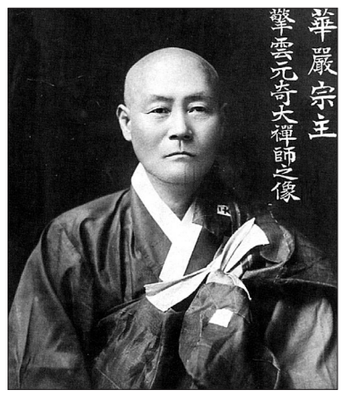
이중 서간은 경운 스님의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경운 스님과 서간을 나눈 인물 중에는 한국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도 있었다. 총 3개의 서간에서 경운 스님은 "오늘 이렇게 뜻밖에 〈금강경〉 두 질을 보내주는 은혜를 입으니, 마치 기원정사에서 법의를 대하는 듯 친히 가르쳐 일러주심을 입었다"면서 "어느 때 편찬하신 이 책을 들고 가서 붓 놓고 편안히 계실 때 가르침을 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손상좌 철운 조종현 스님(소설가 조정래 아버지)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경운 스님은 서간에서 "불법의 문중에서 물러서지 않고, 법기를 성취해 아뇩보리의 소원을 짊어지고 뜻을 새겨 진실로 빈다면 이에 조그마한 성취의 단서가 나보다 나을 것"이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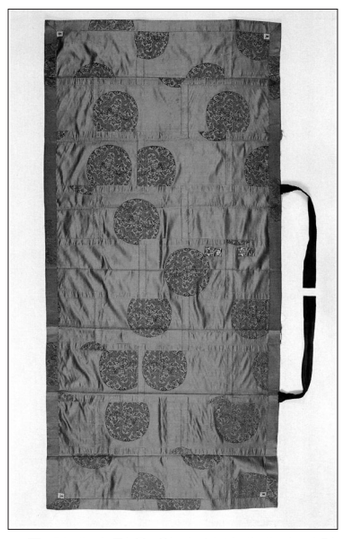
스님 생전 시 · 편지 등 망라
당대 문인들과의 교류 확인
화엄 교학 계보 알 수 있어
관련 연구 활성화 계기 전망

3부는 경운 스님을 기리는 문인들의 글들이 수록돼 있다. 대부분 당대 최고의 문인들로 육당 최남선, 운양 김윤식, 하정 여규형, 선각 권중현, 퇴경 권상로, 매천 황현 등이 스님에게 글을 올렸으며, 구하 선사, 남전 선사 등도 스님을 상찬하는 글을 썼다.

정인보는 경운 스님 수계 60주년을 맞아 문도들이 편집한 수연첩(壽宴帖) 서문에서 "세상에 계시는 사문들 중 석전 박한영 스님을 가장 존경하였는데, 석전은 조계산 장로 경운원기 상인이야말로 계행이 높고 여러 경전으로 가르쳐 교화한 바가 매우 많은 고명한 존숙이라고 자주 말했다"고 밝혔다.



경운 원기 선사 진영. 선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종 황제가 경운 원기 선사에게 수여한 쌍룡문 가사. 선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4부는 경운 스님의 유고 영인본으로 〈견문록〉과 〈견문록초〉가 영인 됐다. 영인 자료는 경운 스님이 전국 명산 대찰과 고적을 유람하면서 선인(先人)들의 글을 옮긴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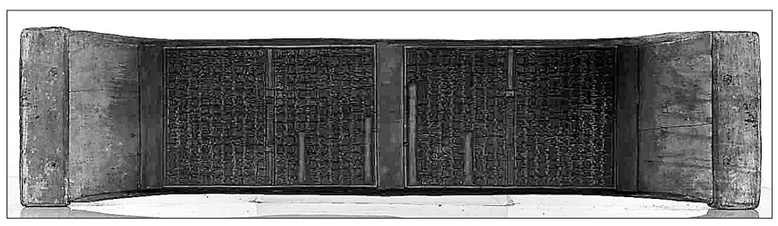
편저자인 신규탁 교수는 "선암사에서는 '침명-함명-경붕-경운'으로 강맥이 이어졌지만, 해방 후 화엄교학의 강맥은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화엄교학의 풍토를 알기 위해서는 경운 스님의 교학 사상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스님의 흩어진 자료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산고집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는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운 스님의 수연첩을 보면 내노라하는 당대 문인 중 글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책을 통해 경운 스님이 시 · 서 · 화와 평론, 서간 등 다양한 분야를 통달한 지성인임을 알 수 있다"면서 "현대의 스님들도 경운 스님처럼 높은 지성과 글쓰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해야 불교를 빛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소장 경전 목판 9건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6월 30일 지정 예고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 성과


보물로 지정예고된 송광사 소장본 '종경촬요 목판.' 현존하는 유일본이다.

사찰에 소장돼 있는 경전 목판들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 '전등사 묘법연화경 목판' 등 10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정예고된 문화재 중 사찰 소장 목판은 9건으로 △강화 전등사 소장본 '묘법연화경 목판' △순천 송광사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 · '인천안목 목판' · '종경촬요 목판' ·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 ·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 △서산 개심사 소장본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등이다.

이 같은 지정예고는 조계종 산하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진행 중인 '전국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2014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선별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강화 전등사 소장본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木板)'은 전체 105판 가운데 첫 부분인 1판이 없는 상태이나, 조선 초기부터 16세기까지 성행되었던 성달생(成達生, 1376~1444) 서체 계열의 〈묘법연화경〉 중 시대가 가장 앞서는 목판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 송광사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大方廣佛華嚴經疏木板)'은 현재 2,347판이 보존돼 있으며, 이는 해인사 대장경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현재 전해지고 있는 불서 목판 중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다. 이 목판은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 스님 등이 중심이 돼 1년 4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전문 인력 50여 명을 동원하여 만든 것으로, 간행 시기와 목판 수량 등에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또한 순천 송광사 소장본 '종경촬요 목판(宗鏡撮要木板)'은 북송의 승려 영명연수(永明延壽)가 편찬한 〈종경록(宗鏡錄)〉의 요점을 간추려 엮은 것으로 모두 17판으로 구성돼 있다. '종경촬요 목판'은 1531년 조계산 은적암에서 다시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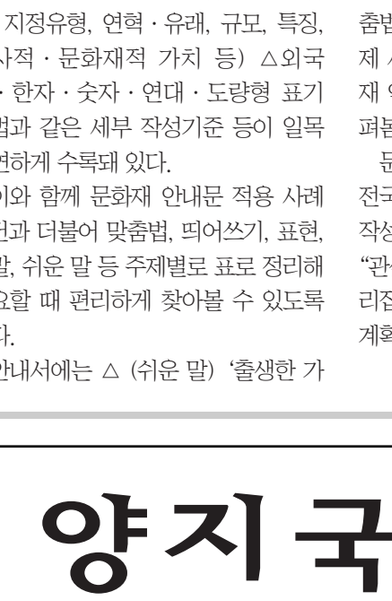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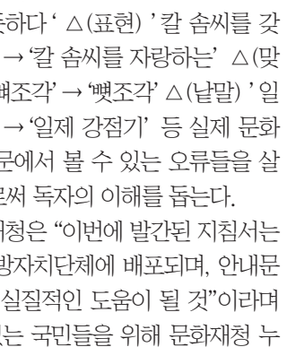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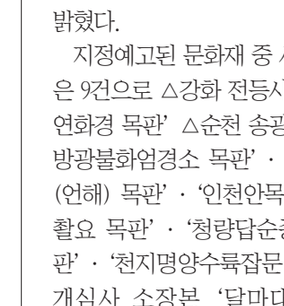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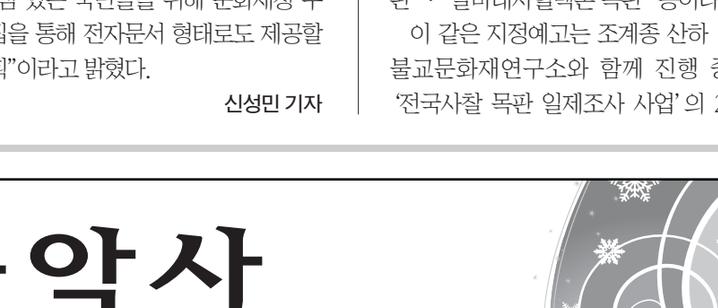
서산 개심사 소장본 '달마대사관심론 목판(達磨大師觀心論木板)'은 초조 달마의 심론을 정리한 것으로, 목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것은 개심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함께 지정예고된 개심사 소장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역시 목판이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개심사 소장 목판뿐이다.

사찰 목판 이외에도 '함통6년명 청동북(咸通六年銘 靑銅金鼓)'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청동북은 범종(梵鍾)과 함께 사찰 의식 때 범음(梵音)을 내는 주요 의식법구로 불교 전래 이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북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청동북은 865년(경문왕 5)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적혀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작연대가 새겨진 청동북 중 가장 오래됐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한 10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